

# 정상회담 특별수행원 47명 확정

### 2000년때의 2배... 정치·사회·문화 총망라 정몽구·구분무 회장 등 경제계 17명 포함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과 문정인 연세대 교수, 문성근 영화진흥위원회 위원 등 민간인 47명이 다음달 2~4일 열리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수행해 방북한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계 6명, 경제계 17명, 사회·문화계 21명, 여성계 3명 등 총 47명으로 구성된 정상회담 특별수행원 명단을 발표했다.

이번 회담에서 노대통령을 수행해 방북하는 수행원은 150명이며, 이날 발표된 특별수행원 47명과 6명의 장관 및 청와대 관계자로 이뤄진 공식 수행원 13명, 경호와 의전 등을 담당

있는 업체 대표 자격으로 방북한다.

또 이철 한국철도공사 사장과 이원길 한국전력공사 사장, 이한호 대한광업진흥공사 사장,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등 8명이 업종별 대표기업인으로 참석한다.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사회단체에서 김상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과 김정길 대한체육회 회장, 백나청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상임대표, 정세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 한완상 대한적십자사 총재 등이 방북한다.

종교계에서는 권오성 한국기독교 교회의회 총무 등 4명이 포함됐고 문화·예술계에서는 문성근 영화진흥위원회 위원과 시인 신경림, 소설가 조정래 등 5명이 방북한다.

학계에서는 김근식 경남대 교수, 김용욱 중앙대 석좌교수, 문정인 연세대 교수, 안병욱 학술단체협의회 공동대표, 이수훈 동북아시아연구원장이 포함됐으며, 언론계에서는 장대한 한국신문협회 회장, 정연주 한국방송협회 회장 등 2명이 방북한다.

여성분야에서는 김홍남 국립중앙박물관장과 김화중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정현백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등 3명이 포함됐다.

정치분야에서는 김원기 전 국회의장과 배기선 남북평화통일특위 위원장, 문희상 대통합민주신당 남북정상회담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열 민주당 정책위의장, 천영세 민주노동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다.

한나라당도 참석 요청을 받았지만 거부했다고 이 장관이 설명했다.

한편 1차 정상회담에 이어 다시 특별수행원에 포함된 인사는 구분무 LG회장과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용욱 중앙대 석좌교수, 문정인 연

### “美, 전자여권만 무비자 입국”... 제2 여권대란 오나

## 한국 내년 7월 도입...신청자 폭증 불보듯

### 외교부 “발급체제 개선... 대란 없을 것”

미국이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의 필수요건으로 전자여권 도입을 내걸고 있어 내년 7월 새 전자여권 발급에 따른 수요 폭주로 여권대란이 우려된다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하지만 외교부는 여권 접수기관 확대와 인터넷 접수 예약제 시행 등으로 전자여권 발급의 적체 현상은 없을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전자여권 수요 급증=한국은 내년 중 미국의 VWP에 가입하기 위해 미국측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가 순조롭게 VWP에 가입되면 국민은 90일간 무비자로 미국을 다녀올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미국은 VWP 가입의 필수조건으로 전자여권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요구대로 VWP 가입이 이뤄지면 전자여권을 소지한 사람만 비자없이 미국을 여행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전자여권을 내년 1·4분기 중 외교관과 관광 여권에 시범 발급하고 같은 해 7월부터 모든 신규발급 신청자로 확대 발급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전자여권 신청자가 내년 7월 일시에 몰릴 것으로 추

분히 예상되는 상황인 것이다.

여권 신청 절차가 또 바뀌게 되는 점도 여권 발급의 적체를 초래할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여권법 개정안은 신청자가 직접 구청 등을 방문, 지문날인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교부 대책=외교부는 현재 미국과 비자면제와 관련한 협의를 진행중이기 때문에 전자여권 소지자만 무비자 단기 입국이 가능하도록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일본 등 기존의 비자면제 혜택 국가들처럼 현재의 사진전사식 여권으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미국측에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설령 미국이 ‘출입국관리는 고유한 주권 사항’임을 내세워 우리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전자여권 발급 체제를 대폭 개선하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외교부는 주장하고 있다. 외교부는 여권 신청접수 업무를 현재의 66개 기관에서 160~200개 기관으로 확대할 예정이고 이렇게 되면 전자여권 발급 과정에서 적체 현상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 측과 핵시설 불능화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10일 방한한 성 김 미 국무부 한국과장(오른쪽)과 임성남 외교통상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이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만나 북핵 관련 사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단장인 성 김 과장을 비롯한 미국 대표단은 11일 판문점을 통해 방북했다. /연합뉴스

## 미·중·러 ‘핵 불능화 팀’ 방북

### 15일까지 영변 시찰, 기술적 방법 등 협의

북한 측과 핵시설 불능화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10일 방한한 성 김 미 국무부 한국과장(오른쪽)과 임성남 외교통상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이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만나 북핵 관련 사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단장인 성 김 과장을 비롯한 미국 대표단은 11일 판문점을 통해 방북했다.

주한 미군측에 따르면 미측 대표단 7명은 이날 오전 11시에 판문점을 통해 입북했다. 중·러 측도 이날 중 베이징(北京)에서 항공편으로 북한에 들어갈 예정이다.

단장인 성 김 미 국무부 한국과장 등 미측 7명, 중·러 측 각 1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15일까지 영변 등지에 머물며 5MW 원자로와 방사화확산시설, 핵연료봉제조공장 등을 둘러보고 이들 시설을 불능화하기 위한 기술적 방법에 대해 북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3국 대표단은 또 각 시설 내부를 살펴보고 연내 핵시설 불능화라는 참가국들의 목표를 물리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도 점검한다.

이들은 북측과 불능화의 구체적 방법에 대해 대략적인 합의를 도출한 뒤 그 내용을 빠르면 다음주, 늦어도 이달 중 열릴 것으로 보이는 차기 6자 회담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을 이번 방북의 목표로 삼고 있다.

3국 대표단이 북측과 불능화 방안에 합의할 경우 차기 6자회담에서 각 국 수석대표들은 이를 추진한 뒤 비핵화 2단계 이행 로드맵을 담은 합의문에 반영하게 된다. /연합뉴스

## “셰익스피어 당신이 쓴 것 맞아요”

영국의 유명한 연극배우 등 300여명이 윌리엄 셰익스피어 이름으로 발표된 작품들의 원작자가 셰익스피어 본인이라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연극배우 데렉 자코비와 배우 겸 감독 마크 라일런스는 10일 발표한 ‘합리적 의심 선언’을 통해 스트래퍼트-어폰-에이번의 문맹 집안 출신의 시골뜨기 셰익스피어가 법률적 지식과 고대어 현대사, 수학 등을 두루 섭렵한 작품을 쓸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영국 잉글랜드 웨스트서식스주 처체스터 극장에서 셰익스피어의 진위 논쟁을 다룬 ‘나는 셰익스피어입니다’라는 연극 공연을 마친 상태다.

앞서 셰익스피어 원작자는 극작가인 크리스토퍼 말로우와 프란시스 베이컨, 옥스퍼드박자인 에드워드 드 비어 등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자코비는 “(셰익스피어가 가져야 하는) 단체의 주장에 동의한다”면서 “혼자서 그같은 일을 혼자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아마 드 비어가 자신의 경험과 인생, 인물을 작품화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자코비와 라일런스는 셰익스피어 원작자를 가리기 위한 대학원 과정을 최초로 개설한 런던 브루넬 대학의 윌리엄 리히 교수에게 선언문을 전달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셰익스피어가 원고료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으며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부인에게 남긴 유언에도 서적과 희곡, 시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덧붙였다. 선언문에는 앞서 셰익스피어 정체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던 마크 트웨인과 오스 웰레스, 존 길구드, 찰리 채플린 등의 명단도 포함됐다. /연합뉴스



멕시코 천연가스관 폭발  
멕시코 동부의 베라크루스주(州)에서 10일 5개 송유관 및 천연가스관이 폭발해 1만2천여명의 주민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다. 군인들이 오메알카 마을 부근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에서 처우하고 있는 불길을 바라보고 있다. 이번 폭발은 직이게릴라의 소행으로 추정되고 있다. /AP=연합뉴스

## “한국 탈북자 단체가 마약밀수 배후 조종” 中 언급...과장 예상

중국 공안당국이 한국의 탈북자단체에서 마약 밀수를 배후 조종했다고 언급해 과장이 예상된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11일 “지린(吉林)성 공안변방총대는 지난 3월 한국의 모탈북자단체가 배후 조종해 한국, 조선(북한), 중국의 불법 인원들이 조선인을 제3국 통로를 통해 한국 밀입국을 알선하고 마약을 밀수한 사건을 적발했다”고 보도했다.

신화통신이 언급한 이 탈북자단체는 지난 1990년대 말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이 설립한 단체로 한국에서는 또다른 단체와 함께 가장 많은 새터민을 회원으로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자들이 중국으로 입국한 뒤 종종 마약밀수 사건에 연루돼 체포되는 경우가 있지만 한국의 특정 탈북자단체 이름까지 중국 언론에 보도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꼽히고 있다.

이에 대해 모탈북자단체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우리 단체 회원이 그런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없으며 마약을 밀수하다 체포된 사람들이 우리 단체 이름을 돌려댔을 가능성이 크다”며 일축했다. /연합뉴스

### 전액국비수강생모집

자격증 취득에서 취업(창업)까지!!

#### 공인중개사과정 [개강:9월3일]

- 과 정 : 주간반(10:00~13:50) / 야간반(19:00~22:30)
- 대 상 : 고용보험 가입 직장인 또는 일반인
- 내 용 : 최종 문제풀이(진전도별 진행)
- 교수진 : 한용호·박한수 교수(저자직강)
- 기 타 : 이론부족시 동영상 무료제공

#### 주책관리사 최종문제풀이 주말반(토입)모집중

(개강 9월 8일)

#### 정보기술(IT)과정 (개강:매월초)

- 과 정 : 정보화기초1과정(화목 19:00~21:00) / 정보화기초2과정(월,수,금 19:00~21:00)
- 자격증(사무자동화)과정(월~금 수시)
- 컴퓨터활용실무과정(월~금 19:00~21:00)
- 대 상 : 고용보험 가입 직장인 또는 일반인
- 기 타 : 훈련수료 후 개인별 합금(노동부)

노동부지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현대직업전문학교

동부경찰서 옆 ☎224-4560, 232-1088 http://www.hdedu.co.kr

### 7급 공무원

완전 대비

행정직, 교행직, 세무직, 관세직, 감사직, 법원직, 검찰직, 교정직, 보호직, 소방직, 전산직, 지공직, 토목직, 건축직, 불린화

◎최선을 다 하지 않고 꿈을 이루려는 것은 허영에 불과하다!!◎

개강: 11월 15일 주·야 (휴일)반 모집 (현재합격률수율)

= 46년 전통의 無等은, 강의第一! 합격最多란 말을 듣고 있다 =

www.mdgoal.co.kr ☎ 222-4560

---

공무원 5만명 증원(2007년부터 2010년까지) = 공무원 합격은 한빛이 주도한다!

### 7급 공무원 개강 10월 1일

사제·대학생수준

개강: 행정, 교행, 세무, 관세, 감사, 법원, 검찰, 교정, 보호, 소방, 전산, 지공, 토목, 건축, 불린화

공무원 이론반 (2개월) / 공무원 문제풀이 (1개월)

세무직 단특반 (이론+문제풀이) / 기술직 단특반 (논술+문제풀이)

www.hanhitgosi.co.kr ☎ 234-0234

일본수입의약품

다들 카페검색 에서 마늘주사 후루민 을 쳐보세요.

http://cafe.daum.net/furumin

※ 마늘주사 후루민은 일본에서 20년동안 애용되고 있으며, 스포츠 선수들과 일상생활이 바쁘고 피곤한 연예인, 직장인, 수험생들에게 널리 애용되고 있습니다.

■ 제조원 : Kyorin Rimedio 주식회사(日本)

■ 판매원 : (주)호원약품

Tel: (062)383-5883

마늘주사 후루민에 투자하실 병의원 원장님 및 일반 투자자를 모십니다.